

〈성진사전〉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 양상

정인혁*

〈차례〉

1. 서론
2. 사기죄의 수법과 성진사 사건의 전말
3. 경계의 '문'과 〈성진사전〉 갈등의 의미
4. 통로로서의 '문'과 안과 밖의 변증법
5. 윤리적 관계의 회복과 '근신'의 의미
6. 결론

〈국문초록〉

〈성진사전〉은 조선 후기 문인 이육이 지은 상주의 진사 성희룡이 겪은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성진사전〉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사기 사건에만 머무르지 않고 흥년으로 발생한 유민들의 모습을 통해 조선 사회의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과 양반과 양민, 부자와 빈민 간의 계급 갈등을 주목하게 한다.

〈성진사전〉의 의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에 있다. 〈성진사전〉이 갈등을 바라보는 방식과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특히 사건의 두 주인공, 성희룡과 거지의 관계에서 초점화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하였다. 서술자는 성희룡의 근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논하는데, 과연 근신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폈다.

〈성진사전〉에서 '문'은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성희룡과 거지의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이다. 〈성진사전〉의 공간은 문을 경계로 부자가 거주하는 문 안의 풍요로운 내부 공간과 거지가 되어 집을 잃고 떠도는 유민의 문밖, 외부 공간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문'은 부자에게는 닫아걸고 지켜야 하는 것, 거지에게는 열어젖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교수

그러나 동시에 문은 안팎의 두 세계를 연결하고 관련 짓는 통로이기도 하다. 성희룡은 문을 개방하여 거지를 또 다른 주체로 인정하고 소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할 때, 타자를 중심에 두는 공감미가 이루어지고 갈등 해소의 길이 열린다. 곧 ‘대면’은 문 바깥의 타자를 나와 같은 또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근신’이란 자기 한 몸의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자신의 중심에 두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갈등의 해결이 단지 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 해소의 가능성은 법의 실제와 법 감정의 간극을 메우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도 있다. 법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는 준법과 범법 간의 끝없는 대립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은 자신의 법 감정을 만족시킬 더 강한 법을 요구하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소통을 통해 타자를 상호 주체로서 인정할 때, 자기 자신의 양심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감추었던 진실이 드러나며 공감을 통해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성진사전>이 제시하는 갈등 해소의 방법이다. 비록 짧은 작품이지만 <성진사전>이 성취한 바는 실로 크다 하겠다.

이옥, <성진사전>, 사기죄, 사회적 갈등과 해소, 문, 안과 밖의 변증법, 근신, 타자

1. 서론

<성진사전>은 조선 후기 문인 이옥(1760~1815)이 남긴 작품이다. 매우 짧은 작품이지만, 다루고 있는 사건이 주는 인상은 강렬하다. 경복 상주의 진사 성희룡과 트집을 잡아 사기를 치려던 거지 간의 시비를 다루고 있는데 당대 유행했던 흉악한 사기 사건이 중심 내용이다. <성진사전>은 폐쇄적 액자 구성으로, 전의 양식에 여항에 떠돌던 설화를 수용하여 소설화의 경사를 이룬 작품으로 논의되었다.¹⁾

이야기의 주인공인 성희룡의 역사적 실체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성록〉의 다음 기록은 〈성진사전〉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흉년에 발생한 유민의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정조 19년(1795년) 11월 25일자 〈일성록〉에 기록된 부사직(副司直) 김정국(金鼎國)의 상소에는 유민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열제는 유민(流民)을 단속하는 일입니다. ... 평소요 요행을 바라고 더부살이 하는 무리는 아침에는 동쪽으로 저녁에는 서쪽으로 쉽사리 이합집산합니다. ... 그들(원 주민)의 고생스럽고 가련한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고, 게다가 유민들로 인해 곤란을 당할까 날마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련합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임인년(1782, 정조6), 계묘년(1783) 이후 유민들이 규합하여 도당(徒黨)을 만들어서 1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 밤에는 사찰에 진 치고 낮에는 마을을 꼭 채우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번갈아 먹고 비할 데 없이 소리를 쳐 대며 조금이라도 그 뜻을 거스르면 고의로 트집을 잡아 괴롭힙니다. 그런가 하면 병들어 다 죽게 된 자를 데려다 서로 짓밟아 강제로 죽이기까지 하여 많은 촌락 사람들이 느닷없이 연루되어 조사받느라 농사지을 때를 잃게 되 기도 하니 그 피해가 기근보다 열 배나 됩니다.

十曰, 檢流民臣. ... 而平日倖民浮寄之徒, 朝東暮西容易聚散矣. ... 又甚多其艱難辛苦之狀有不忍見 而, 又爲流民所困惴惴度日甚可矜也. 臣竊觀, 壬寅癸卯以來, 流民引聚徒黨十百爲群, 夜則屯聚寺刹, 晝則遍滿閭里, 輪回遞食咆喝無此, 少拂其意故爲生釁. 取其癡疾將斃者, 自相蹈藉勒成殺人, 許多村落橫被考連, 失其農時, 其害十倍於饑饉矣.²⁾

기근으로 흉년이 들면 유민의 구제를 위해 비교적 상황이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렇게 유입된 유민들이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

1) 박희명, 『朝鮮後期 傳의 小說의 性向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122쪽 ; 174쪽 ; 373쪽 참조.

2) http://db.itkc.or.kr/inLink?DCI=ITKC_IT_V0_A19_11A_25A_00190_2014_138.XML, 괄호 안은 필자

고 머무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 악행을 저지르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이들이 있던 것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처럼 고의로 트집을 잡아 촌락민을 괴롭히기도 하고, 병든 이를 일부러 죽이고는 촌락 사람들을 옥사에 연루시켰다는 기록도 보인다. 아마도 <성진사전>에 기록된 사기 사건 역시 이러한 일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성진사전>의 서두는 다음과 같은 사기 수법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간교함이 날로 심해지고 사기가 날로 들끓고 있다. 굶어서 죽은 자의 시체를 업고서 밤에 남의 집 문을 열어젖히고 주인을 급히 부른다. 성질을 돋게 하여 서로 주먹질을 하는 데까지 이르면 큰 소리로 주인 때문에 동료가 죽었으니 고발하겠다고 한다.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서야 일이 겨우 가라앉게 되니 또한 험악한 일이다³⁾

世之有斯民久矣。奸狡日熾，機詐日沸。有負殍，而夜抵人之門，呼主人急，仍激怒之，及至相格鬪。始大言：“主人殺我侶！將詣縣告。”主人何由知，費重賂，事僅得平，亦險矣哉！⁴⁾

<성진사전>의 주인공 성희룡도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는데, 이옥은 이를 취하여 <성진사전>으로 지어낸 것이다.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사기죄라 한다. 경제적인 피해뿐 아니라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까지 주는 각종 사기 수법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를 지켜주고 회

3) 李鈺 著,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옥전집』 2, 소명출판, 2001, 228쪽. 현대어 번역은 이 책을 따르되 원문과 대조하여 수정 보완, 이하 인용문 끝에 쪽수만 표기

4) 李鈺 著,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完譯 李鈺全集』 4, (주)휴머니스트, 2009, 245쪽. 이하 인용문 끝에 쪽수만 표기.

복시켜 주어야 할 법은 종종 실제와 동떨어져,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보호를 받고,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중이 기대하는 법 집행과 실제 사이에 어긋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 어떤 이들은 법 앞의 평등과 실질적인 법 집행을 요구하며, 사적 제재의 욕망을 직접 표출한다. 사적 제재의 욕망을 다룬 인터넷상의 소설이나 만화, 이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다.

그런데 <성진사전>의 사기 사건은 그 자체의 간교함과 흉악함 외에도 흉년의 시기에 놓인 조선 사회의 양반과 양민, 부자와 빈민 간의 경제적 불균형과 신분에 따른 계급 갈등이 담겨 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 사회에서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다. 영조조의 시대는 조선의 르네상스기라고 평가되지만, 즉위 초부터 왕권에 대한 도전 등으로 임금의 권력 또한 안정적일 수 없었던 정조의 시대 역시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성진사전>은 기근으로 인해 큰 흉년이 들었던 때에 벌어진 참상을 생계형 사기 범죄에 주목하여 그려낸다. 굶어 죽은 시신을 메고 와서 떠밀려서 죽었다고 트집을 잡고 돈을 빼앗으려 할 정도로 피폐한 당대 현실과 험악해지고 파탄이 난 인정세대를 보여준다.⁵⁾ 단순히 남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악독한 사기꾼의 악함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가족의 시신마저 이용하는 이들이 처한 사회적 갈등 또한 주목하고 있다.

갈등은 인간사회만큼 오래되었다. 사회적 갈등은 사회 구조와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한 분배로 인해 발생한다. 계급, 젠더, 민족 등 다양한 요인들의 불평등으로부터 비롯된 이해 관계의 충돌이다.⁶⁾

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508쪽.

6) 앤서니 기든스·필립스 W. 서튼 지음, 김봉석 옮김,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동녘, 2018, 416~417쪽.

특히 흥년과 같은 원인으로 자원, 그것도 특히 생존과 관련된 자원이 한정될수록 갈등은 첨예해진다. 그런데 특히 <성진사전>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포착하면서 국가 제도나 법적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갈등 주체 간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는 그 방법에 있다. <성진사전>이 이러한 사기 사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며, 특히 성희룡과 거지의 관계에서 주목한 지점은 무엇일까.

<성진사전>은 작가 이옥, 이옥 문학 연구와 조선 후기 전의 소설화 상상 연구 속에서 논의되었다.⁷⁾ <성진사전>의 갈등 해소와 관련한 논의로는 정환국의 것이 있다. 정환국은 이옥의 전을 대상으로 이옥의 인간관을 논의하면서 입전인물 성희룡에 대해 ‘부정적인 대상과의 조우에도 … 흔들리지 않고 自守함으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⁸⁾ 본고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진사전>의 서사를 분석하여 성희룡이 ‘自守’한 것, 스스로 지킨 것은 무엇일까? 근신하며 스스로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지, 그것이 어떻게 서사화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조선 후기의 문인 이옥(1760~1815)은 성균관 유생이었지만 정도에서 벗어난 문체를 사용한다고 해서 정조로부터 수 차례의 견책과 두 차례 충군의 벌을 받았다. 결국 관로가 막혀 불우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7) 조동일(2005), 위의 책; 박희병(1993), 앞의 책, 같은 곳; 정인혁, 『朝鮮後期 傳系短形敘事體 研究 : 조선후기 지식인의 정체성 찾기』, 한국학술정보, 2004 참조, 그 외 이옥의 문학론 및 이옥 작가론, 주제 별 이옥 작품론 등으로 다음의 논문 참조 정인혁, 「<신병사전>의 서사적 갈등 구조 연구」, 『어문연구』 40-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정환국, 「李鈺의 인간학: 傳을 대상으로」, 『韓國漢文學研究』 제52집, 2013; 김경희, 「<장복선전>에 나타난 이옥의 문제의식 고찰: 심노승의 <사가야하기>, 정약용의 <방친유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민희주, 「李鈺의 세계 인식과 글쓰기 방식」, 『민족문화연구』 제81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박수밀, 「이옥의 문학에 나타난 생태 글쓰기와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54집, 우리어문학회, 2018; 김경미, 「존재론의 관점에서 본 이옥의 벌레 대한 인식」, 『어문론총』 8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8) 정환국(2013), 앞의 논문, 250~251쪽.

이옥은 불우한 중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를 소신 있게 밀고 나갔다.⁹⁾ 같은 시기 적지 않은 이들이 정조의 문체반정에 따라 자기 문학의 방향을 돌려 순응한 것과 달리 이옥은 자신만의 색을 갖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¹⁰⁾ 이옥에게 있어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갖고 난 본성과 기질에 따라 다른 모습을 지닌다.¹¹⁾ 어떤 이의 모습은 때로 다른 이들의 눈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엇갈리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옥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존재였다. 그러므로 남이, 비록 그것이 임금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살 뿐인 것이다. 그런 이옥에게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삶의 모습이 담긴 세태는 모두가 깨달음의 대상이지 않았을까.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주목했던 이옥이 이 사건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 성희룡과 거지에게서 포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름의 존재 이유를 갖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이옥의 관점은 성희룡과 거지 간의 ‘갈등’을 바라보는 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성진사전〉은 사회적 불균형으로부터 시작된 갈등과 갈등 해소에 있어 ‘법’의 한계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 짧은 이야기가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2. 사기죄의 수범과 성진사 사건의 전망

〈성진사전〉은 경북 상주의 진사 성희룡이 겪은 일을 그린 이야기이다.

9) 조동일(2005), 앞의 책, 505~506쪽.

10) 정환국은 이옥이 확고한 가치 판단으로 인물을 종속시키지 않았기에 이념의 굴레에 갇혀 있던 인물들의 틀을 깨고 원래의 ‘자신’으로 회귀시키는 에토스적 시선을 갖고 있다고 평하였다. 정환국(2013), 위의 논문, 255~256쪽.

11) 같은 논문, 255쪽.

작중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사를 분절하면 다음과 같다.¹²⁾

- ① 서두
- ② 성희룡은 상주 사람으로 집안이 원래 부유했다.
- ③ 흉년이 들자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많았다.
- ④ 한 계집종이 거지가 밥상을 채갔다고 희룡에게 고했다.
- ⑤ 희룡은 주라고 말했다.
- ⑥ 또 계집종이 거지가 그릇을 가져가려 한다고 고했다.
- ⑦ 희룡이 괜찮다며 불러오게 하였다.
- ⑧ 희룡이 거지에게 팔겠느냐고 물었다.
- ⑨ 거지가 천오백 냥 이상을 받겠다고 하였다.
- ⑩ 희룡이 천오백 냥을 주게 하였다.
- ⑪ 거지가 그의 처를 부르고 말하길 희룡은 부처님이라고 하였다.
- ⑫ 거지가 포대기를 풀자 죽은 아이의 시체가 나왔다.
- ⑬ 거지는 희룡의 근신하는 힘에 감복하였다며 돈과 그릇을 내놓고 갔다.
- ⑭ 논찬

상주의 부자 성희룡은 흉년에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이들이 있으면 막지 않고 대접했다.(②)¹³⁾ 본격적인 사건은 ③부터 시작된다. 그날도 성희룡의 집안은 굶주리는 이들에게 밥을 내어주고 있었다. 계집종이 달려와 고하기를, 밥을 주려는데 한 거지가 그 상을 채갔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성희룡은 배가 고파 그런 것이니 그냥 주라고 하였다. 그런데 계집종이 또 달려오더니 거지가 밥을 먹고는 그릇을 모두 가져가려 한다는 것이다. 성희룡은 괜찮다고 하면서, 그를 불러오도록 한다.

12) 정인혁(2004), 앞의 책, 174쪽.

13) 成希龍, 尙州人也. 家素饒, 凶年多食客. 245

계집종이 막 밥을 주려고 밥상을 내어 가는데, 한 계집종이 달려와 말했다. “포대기를 등에 진 거지 놈이 까마귀처럼 채갔습니다.” 희룡이 말하길, “굶주렸던 게다, 주거라.” 잠시 후 한 계집종이 또 달려와 말했다. “그릇을 포대기에 넣고 가려 합니다.” 희룡이 말하길, “괜찮다.” (성희룡이 거지를) 불러오게 하니 이르렀다.

婢方傳食出盤, 一婢奔曰: “有襁負而丐者, 烏攫去!” 希龍曰: “饑矣, 予之” 須臾, 一婢又奔曰: “橐其皿, 且去!” 希龍曰: “善.” 召之至.

대접을 받으면 감사를 표해야 할 텐데, 거지는 감사는커녕 그릇마저 가져가려 한다. 그런데 성희룡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지의 무례한 행동에도 붙잡아 그릇을 되찾기보다 자리에 마주 앉아 그릇을 자신에게 팔겠느냐고 묻는다. 거지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화내는 기색으로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뻔뻔하게 천오백 냥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고 한다.

그 자(거지)는 도리어 싸울 기색이 있었다. 희룡이 말하길, “(그릇을) 팔려고 하는가?” 말하길, “그래.” 희룡이 말하길, “그러면 내게 팔게.” 말하길, “천오백 냥 아래로는 안 팔아.” 희룡은 천오백 냥을 주게 하였다. 228~229

反有武色. 希龍曰: “賣乎?” 曰: “然.” 曰: “賣諸我.” 曰: “下千五百, 不賣.” 希龍命與千五百錢. 245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흥정을 하는 거지의 억지에도 성희룡은 원하는 대로 천오백 냥을 순순히 주도록 한다. 그러자 뜻밖의 상황에 거지는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을 쳐다보다가 밖에 있던 자기 아내를 부른다.

거지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바깥을 향해 그의 처를 불렀다. “이 어른은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이야.” 그 포대기를 푸는데, 죽은 아이가 나왔다. 229

舌熟視良久, 向外招其妻人, 曰: “此非人也, 佛也.” 解其繻, 有死兒, 245

①서두의 사기 수법처럼, 이들 역시 그릇을 훔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억지를 부리다가 도발에 넘어간 주인집 사람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면 죽은 아이의 시신을 내놓으며 살육(殺獄) 사건으로 몰아가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행위를 용납하고 천오백 냥이라는 거금까지 선뜻 내어놓는 성희룡에게 거지 부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

제가 남에게 불법을 저지르면 사체는 반드시 저를 내쫓으며 떠밀게 되어 있고, 저를 내쫓으며 떠밀면 저는 아이가 죽었다고 위협하여, 큰 대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29

乃曰：“我不法於人，勢必毆擗我，毆擗我，我脅之以兒死，可得重賂。 245

거지 부부는 희룡에게 받은 천오백 냥의 돈과 가져가려던 그릇 등을 모두 내어놓고 떠나간다. 성희룡의 근신하는 태도를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계교를 이루지 못한 것은 어른께서 몸을 근신의 힘이 있는 까닭입니다. 감히 사양하겠습니다.” 마침내 돈과 그릇을 내놓고 갔다. 성씨는 결국 잃은 것이 없었다. 229

今計不成，子有謹身之力故也，敢辭。” 遂委錢與皿而去。 成氏卒無所失。 245

결과적으로 성희룡은 억울한 옥사에도 휘말리지 않고, 한 푼의 돈도, 재물도 잃지 않게 되었다.

①서두의 끝 부분에서 서술지는 성희룡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히 논한다.

그러나 지극히 몸가짐을 삼가는 사람에게는 간사한 자도 감히 흥정을 하지 못하고 사기꾼도 감히 꾀를 내지 못한다. 속담에, “세 사람의 귀인을 사귀기보다

내 한 몸 삼가는 게 낫다”고 한다. 성씨의 아들이 거의 그런 사람이 아닐까. 228
然至謹之人, 奸亦不敢賣, 詐亦不敢圖. 諺曰: “毋交三貴人, 惟謹一吾身.”
成氏之子, 庶幾乎! 245

아무리 간사하고 교활한 사기꾼이라도 자신의 몸가짐을 지극히 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 없다는 것으로 거지가 성희룡에게 한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를 보건대 서술자는 성희룡의 지극한 몸가짐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평하는 것이다.

성희룡의 근신하는 힘, 자신의 한 몸을 삼가는 힘이 거지의 사기를 포기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근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희룡이 한 것은 거지가 하려던 행위를 그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예도 표하지 않고 밥상을 채가거나, 그릇을 훔치거나, 적반하장으로 천오백 냥을 내어놓으라는 억지에 대해서도 그냥 응한 것 외에 성희룡이 한 것은 무엇인가. 일견 성희룡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듯 하다. 그런데 또 의문인 것은 반대로 거지는 왜 성희룡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용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그릇과 돈을 챙겨가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포대기에 감추고 있던 것까지 풀어놓으며 자신들의 속셈을 실토하고 마음을 털어놓으며 회심하게 했던 것일까? 작중 인물인 거지와 논찬자 모두 사건의 해결에 성희룡의 근신이 있었다고 평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희룡의 근신은 개인적인 수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비로소 드러나는 것임을 의미한다. 성희룡과 거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추적하면서, 이 사건 속 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근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서사화되는지 살펴보자.

3. 경계의 ‘문’과 〈성진사전〉 갈등의 의미

먼저 상주의 진사 성희룡과 흥년에 유민이 된 거지가 만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성진사전>의 서사라고 할 때, 사건의 발단은 문이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사기는 부자가 문을 닫아걸거나 그들을 무시하고 아예 열지 않으면 시작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신을 업고서 밤에 남의 집 문을 ‘열어젖혀야’ 하는 것이다.¹⁴⁾ 따라서 사건 전개에 시작에 ‘문’이 있다.

‘문’은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 중심에 놓인다. <성진사전>에서 ‘문’은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성희룡과 거지의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인 것이다. <성진사전>의 공간은 부자가 거주하는 문 안의 내부 공간과 거지가 되어 떠도는 유민의 문밖, 외부 공간으로 구별된다.

소설의 공간은 있는 그대로의 공간이라기보다 서술자나 인물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다. 소설의 ‘공간’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인식’되어 재구성되는 것이다.¹⁵⁾ 따라서 같은 장소라도 서술자나 작중 인물들의 인식에 따른 공간은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서술자와 인물의 인식 공간을 살필 때 각 인물 간의 관계와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즉 텍스트 표면에 드러난 것 내부에 감추어진 공간의 의미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¹⁶⁾ <성진

14) 有負殍，而夜抵人之門。 245

15) 소설의 공간은 이야기-공간과 담화-공간으로 나뉜다. 이야기-공간은 작중 인물들의 공간이다. 이 작중 인물들의 공간 중 일부만이 우리에게 서사화되어 담화-공간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작중 인물들이 처해있는 이야기-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술자와 작중 인물의 말이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초점화를 추론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시모어 채트먼,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민음사, 1999, 122쪽 참조.

16) ‘문’ 또한 두 공간의 경계에 놓인 것이므로 인물에 의해 인식되는 공간성 속에서 의미를 지닌다. 같은 책, 115쪽.

사전〉의 공간은 문을 경계로 먹을 것이 있는 부자의 내부 공간과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이 만연한 거지의 외부 공간으로 인식된다. 동일한 ‘문’이지만, 문 안의 주인에게 문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인식되지만, 문 바깥의 거지에게는 밥을 먹기 위해 열어야 하는 장애물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당사자인 성희룡과 거지는 각각 문을 경계로 문 내부에 거주하는 자와 문 외부를 떠도는 자로 규정된다. 각각의 공간에서 성희룡은 집 안에 거주하는 부유한 자이고 거지는 거주할 곳 없이 떠도는 자이다. 인간을 본질적으로 집 속의 존재¹⁷⁾라 할 때, 거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존재인 것이다. 안식과 위안이 되는 집이 없이 유리하다는 것은 행복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성희룡에 관한 인정기술에서 성희룡의 집안이 ‘본디[素]’ 부유하였다는 정보 또한 주목된다. 상주 진사 성희룡의 집안은 본디 넉넉했다는 것이다.¹⁸⁾ 흉년에도 안식과 위안이 되는 넉넉한 집이라는 공간이 오랜 시간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흉년에도 문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사는 ‘양반’의 신분을 환기시킨다. 이는 단지 공시적으로 먹을 것이 많고 적음의 대비를 넘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신분 차이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문 내부의 공간은 권세와 경제적 부를 충족한 양반의 공간이며, 문 외부의 공간은 권세와 경제적 부를 축적하지 못한 미천한 신분의 존재들이 유리하는 공간이다.

문을 경계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은 안팎으로 서로 대칭을 이룬다. 성희룡의 집 안은 부유함, 곧 흉년에도 먹을 것을 저장해 둔 여유 있는 공간이 있는 저장의 공간이며, 풍요와 행복의 공간이다. 반면 거지 부부의 집 밖은 굶어 죽은 자의 시신이 즐비하고 집도 없어 안주하지 못한 채 떠돌아 다니는 유민들의 기아의 공간이며 언제나 불행과 위협을 맞닥뜨릴 수

17) 李在銑, 『韓國文學主題論』, 西江大學校出版部, 1991, 322쪽.

18) 成希龍, 尙州人也. 家素饒. 245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집이 사람을 유동의 삶으로부터 정주시키고 겨울의 추위와 도둑 등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공간이라고 할 때¹⁹⁾, 외부의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젖히는 행위는 경계를 넘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진사전>에서 거지가 문을 열어젖히는 행위는 단순히 밥을 빌어먹기 위한 물리적 행위의 의미를 넘는다. 권세와 부를 가진 자에 대한 신분상의 사회적 갈등의 표출이기도 한 것이다.

사회적 갈등이 자원과 자원을 통해 축적한 부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할 때, <성진사전>의 사건은 흉년을 계기로 촉발된 빈부의 문제와 신분상의 사회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다. 본디 부유한 양반의 집과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떠도는 거리는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봉건사회 조선의 신분제에 따른 부의 편중이 불러온 심대한 불균형의 양상을 뚜렷이 드러낸다. 문을 경계로 나뉘어 있던 권세와 부를 독점한 신분과 그렇지 못한 신분의 갈등이 자원의 한정이 극에 달한 순간 문이 열어젖히지며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성진사전>이 지어진 조선 후기 사회는 그동안 사회를 지탱해 온 주자학적 성리학이라는 가치 질서가 임병 양란을 거치면서 점차 그 명분을 잃어가는 시대였다. 충효열과 같은 가치의 준수를 통해 일상의 삶에 질서를 부여했던 ‘유교국가’ 조선이라는 공간의 탈중심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탈중심화된 공간은 인과나 시간과 같은 논리에 의해 질서 잡혀 있던 시간 속 공간과 질적으로 달라진다.²⁰⁾ 기근과 같은 재해로 큰 흉년이 일어나

19) 李在鎡(1991), 위의 책, 322쪽.

20) 공간은 본질적으로 시간과 달리 놓여진 그대로 산만한 것이다. 일상 속에서 파악하고 인식되는 공간은 유교적 질서와 같은 것에 의해 설명되고 인식 가능한 형태로 구성된 가공의 공간인 셈이다. 그러나 하나의 통일된 세계로 구축할 절대적 힘이 사라지면 공간은 더 이상 이해하는 방식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
의 시학』, 동문선, 2003, 353~355쪽.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주자학적 성리학이라는 절대적 가치 질서마저 흔들리는 조선 후기의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양반이 백성을 사랑하여 편안케 하고 백성이 양반을 따르고 존경하던 안정적 공간이 아니다. 사회를 통합하던 가치 질서가 무너질 때 서로의 공간을 구별하던 경계는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혼란은 가중된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부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신분상의 차이를 없애거나 부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계급 체계를 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봉건사회 계급 체계는 비인격적이어서 낮은 계급에 속한 이들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²¹⁾ 당연히 봉건사회에서 계급 체계가 갈등 해소를 위해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4. 통로로서의 ‘문’과 안과 밖의 변증법

의미론적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벽은 사람들 간의 경계가 되어 보호의 의미를 갖는다.²²⁾ ‘문’ 또한 이 편과 저 편을 나눈다는 점에서 넓게 보면 벽의 한 부분으로서 내부와 외부로 가르는 경계가 되고 인간 존재의 내적 현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간의 주인을 알려주는 패는 문에 걸며, ‘문단속’은 이러한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문은 안팎의 두 세계를 연결하고 관련 짓는 통로이기도 하다. 공간을 경계 짓는 벽 가운데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구이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문은 개방과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다. 문의 이미지는 열림과 닫힘, 긍정과 부정의 세계관의 상징이다.²³⁾

21) 앤서니 기든스(2018), 앞의 책, 210~212쪽.

22) 물론 때로는 감옥의 두꺼운 담처럼 가두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진사전>의 사건이 문에서 시작되었듯, 안과 밖이 교통하는 지점에서 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두 번 열린다. 앞서 살핀 것처럼 첫 번째 열림은 ④에서 거지가 까마귀처럼 상을 채가는 행위에서 드러나듯 밖에서 안으로 열어젖혀지는 것이다. 외부인이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남의 집 문을 열어젖히는 행위는 ‘침입’을 의미한다. 무엇인가를 서로 빼앗거나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는 공간에서 문은 먹을 얻기 위해 열어야 하는 것이거나 굳게 닫고 지켜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공간에서 문은 열려서도 안되고 열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두 번째 열림은 ⑦에서 일어난다. 그릇마저 가져가려 한다는 계집종의 이야기에 성희룡은 괜찮다고 하면서 거지를 불러오라고 한다. 문 안의 존재인 주인 성희룡이 거지와 대화하기 위해 맞이들일 때 문은 안쪽에서 바깥 쪽으로 열린다. 문을 외부로 ‘개방’하는 것이다. 침입하여 빼앗으려는 외부의 타자로부터 굳게 닫고 지켜야 할 문을 스스로 여는 것이다. 성희룡은 달라는 대로 주어서 보내버리면 되었을 거지를 구태여 문을 열고 불러들인다. 이러한 행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희룡의 행위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자.

거지를 대면한 성희룡은 계속되는 거지의 억지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인다.

“내게 팔게.” 이르길, “천오백 냥 아래로는 안 팔아.” 희룡은 천오백 냥을 주게 했다. 거지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바깥을 향해 그의 아내를 불렀다. 말하길, “이는 사람이 아니야. 부처님이야.” 그 포대기를 푸는데, 죽은 아이가 나왔다. 곧 이르길, “제가 남에게 불법을 저지르면 사체는 반드시 저를 내쫓으며 떠밀게 되어 있고, 저를 내쫓으며 떠밀면 저는 아이가 죽었다고 위협하여, 무거운 대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계교를 이루지 못한 것은 어른께서 몸을 근신하

23) 이재선(1991), 앞의 책, 335쪽.

는 수양이 있는 까닭입니다. 감히 사양하겠습니다.” 228~229

“賣諸我.”曰：“下千五百，不賣。”希龍命與千五百錢。丐熟視良久，向外招其妻人，曰：“此非人也，佛也。”解其繃，有死兒，乃曰：“我不法於人，勢必毆擗我，毆擗我，我脅之以兒死，可得重賂，今計不成，子有謹身之力故也，敢辭。”²⁴⁵

거지는 천오백 냥을 순순히 내어주는 성희룡을 한참 동안 말도 없이 바라보더니, 밖에서 기다리던 공범인 아내까지 불러들이고는 그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을 모두 털어놓는다. 성희룡이 문을 개방함으로써 이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⑫에서 거지가 스스로 메고 있던 포대기를 풀고 굶어 죽은 아이의 시신을 꺼내놓는 행위이다. ①서두의 사기에서 죽은 동료의 시신은 집주인을 겁박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었다. 죽은 이의 목숨을 수단으로 욕심을 채우려는 인간성의 과국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이들 거지 부부가 아이의 시신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자 가장 소중한 것, 자신들의 가장 아픈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성희룡이 안에서 밖으로 문을 개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문 바깥의 타자였던 거지와 소통이 이루어질 때 이들 간의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들을 가로막고 있던 경계로서의 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침입해야 했던 문이 개방될 때 대립적인 갈등의 관계였던 이들에게 ‘대면’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여기에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문 바깥의 타자가 내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문 바깥에 있던 타자를 또 하나의 주체로서 직접 대면하고 그의 ‘목소리’, 마주 앉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면한다는 것은 문 바깥의 타자를 나와 같은 또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문 뒤에 숨어있던 타자의 얼굴을 대면함으로써 각각의 주체는 그것의

형식에 갇혀 있지 않고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문을 개방함으로써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얼굴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얻게 되는 것이다.²⁴⁾ 형식, 곧 가면을 벗은 노출된 얼굴은 상처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저항에 근거한다. 그렇기에 얼굴에서 도덕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²⁵⁾ 거지는 문밖에서는 그저 부유하고 인색한 양반으로만 여겼던 성희룡의 베푸는 행위가 진심임을 그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깨달았으며, 성희룡과 대면함으로써 거지 또한 단지 험악한 사기꾼이 아니라 연약한 한 인간임을 드러낸다.

레비나스는 진정한 윤리적 관계란 나를 중심에 두고 이루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타자를 중심에 둘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였다.²⁶⁾ 그것이 진정한 ‘공감’이다. 이때 타자는 나를 위협하던 침입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적으로 갇혀 있던 나로 하여금 외부로 나아가게 해주는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성희룡의 행위는 단지 흉년이 들어 굶는 이들에게 여유 있는 재산을 나누어 밥 한 끼를 주는 부자 양반의 동정 내지 생색이 아니다. 성희룡이 문을 열고 거지 부부를 그의 집안으로 부르는 것은 그들을 또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공감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의 열림을 통한 안과 밖의 변증법이 있다. 모든 주체는 안과 밖의 변증법 가운데 존재한다. 내가 거주하는 내부의 공간, 곧 집의 경계를 통해 내적 자기 존재를 체험하지만, 그 경계의 외부 공간을 인식할 때 내 공간의 둘레와 형상을 인식하고 세계 내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안과 밖의 변증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다. 바로 그 안과 밖의 변증법의 중심에 ‘문’이라는 半開의 우주가 존재한다.²⁷⁾ 진정한 정체성은 타자의 존

24) 엠마누엘 레비나스 지음, 강연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1, 135~136쪽.

25) 같은 책, 137쪽.

26) 엠마누엘 레비나스(2001), 앞의 책, 140쪽.

27) 바슐라르(2003), 앞의 책, 355~370쪽 참조.

재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 또 하나의 주체인 타자로서 인정하고 윤리적 관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²⁸⁾ 비로소 성희룡은 부유한 양반에 그치지 않고 진정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거지라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희룡의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된다.

5. 윤리적 관계의 회복과 ‘근신’의 의미

서술자는 ‘지극히 몸가짐을 삼기는 사람에게는 간사한 자도 감히 흥정을 하지 못하고 사기꾼도 감히 꾀를 내지 못한다.’고 하여 간교한 사기꾼의 행태를 비판하고 성진사의 근신을 높이 평가한다. 나이가 비판적인 시선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서술자는 논찬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화서외사는 말한다. 그때 만약 성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옥사가 성립되었을 것이고, 옥사가 성립되면 법을 담당한 자가 반드시 ‘죄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여러 해 동안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성씨로서는 또한 억울하지 않겠는가? 아, 진실로 서문표와 같이 밝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어 법을 맡았다면 거지가 감히 이런 짓을 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229

花溲外史曰：向使成氏，不之爾，獄必獄成，掌法者，必以爲‘罪疑’也，累歲不能決。爲成氏者，不亦冤乎？噫！苟有明察如西門豹，莅乎法，丐必不敢爲是矣。 245

서술자는 서문표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법을 집행했다라면 애초에 사기를 획책하는 이들이 없었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²⁹⁾ 법을 집행하는 이

28) 엠마누엘 레비나스(2001), 위의 책, 140~142쪽.

29) 서문표는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의 정치가로 악습과 폐단을 바로잡은 인물이다. 서문표에 대해서는 사마천, 卷126 <滑稽列傳> 第66, 정범진 외 옮김, 『史記列傳』 下,

들이 제대로 집행했다라면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사기와 기망을 획책하는 일도 없었을 것임을 역설한다. 이는 이와 같은 범법행위가 개인의 악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일지라도 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판결하는 관리의 부재와 제도의 한계 역시 혼란스러운 세태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흉년에 대비하고 구휼의 제도를 충실하게 마련하지 못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도 지적되는 것이다. 관리의 임명 또한 조정의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 자신의 몸을 근신한다는 것과 거지와와의 갈등 해결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대개 사람들은 범법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한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기대한 만큼의 법적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들의 법 감정은 실제의 법 집행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들의 공간은 ‘법’을 기준으로 법을 준수하는 자신들의 공간과 법을 위반하는 타자의 공간으로 나뉜다. 이는 문을 경계로 부차이면서 양반인 ‘선한’ 나와, 문을 열어젖히고 침범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모르는 ‘악한’ 저들을 구별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법의 인식 공간에서는 준법과 범법 간의 끝없는 대립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법적인 인식은 법 감정을 만족시킬 더 강한 법을 요구하게 될 뿐이다.

반면 성희룡은 불법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는 대신, 거지에게 문을 열고 얼굴을 마주하여 소통하고 그의 입장에 공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성희룡은 법을 위반한 문 바깥의 그들을 법적 기준으로 구별하고 배제하기보다는, 그들의 행위를 흉년으로 인한 배고픔과 집을 잃고 떠난 불안과 절박함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 입장에서 재산을 지키거나 되찾고, 화를 내거나 분을 풀기 위해 똑같이 힘이나 법을 이용하기보다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스스로 간수하며 타자를 중심에 두고

까지, 1995, 1116~1118쪽 참조.

타자의 입장에서 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스스로 지킨 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이었던 것이다. 근신의 완성 은 타자를 자기의 중심에 두는 데에서 이루어진다. 사회적 갈등의 해결책 은 개인의 근신하는 윤리적 태도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성희룡이 거지를 불러 대화한 것은 그들을 더럽고 천한 유민으로 여기거나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사기꾼으로 멸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성희룡은 그들을 대화의 상대, 곧 또 다른 주체로 여겼다. 그러한 성희룡 앞에 거지는 아내와 함께 스스로 굶어 죽은 아이의 포대기를 풀어 보여주며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면서 더 이상 간교하고 험악한 사기꾼이 아니라 굶어 죽은 아이의 아버지, 자신을 기다리던 아내의 지아비라는 정체성을 재확인 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공간을 개방하고 자신의 치부까지 모두 드러냄으로써 이들 사이에는 진실한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의 도덕적 힘이 드러나는 것이다. 타자를 상호 주체로서 인정할 때, 자기 자신의 양심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타자를 주체로서 인정하고 문을 열어 소통할 때, 감추었던 진실이 드러난다. 잘못을 인정할 때, 공감을 통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서로 다른 각 주체는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진사전>이 성취한 것이다.

짐멜에 따르면 갈등은 사람들을 서로 접촉하게 하고 단합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인간 유대의 유형이다. 그래서 갈등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일지 몰라도 갈등 관계는 상호 연결을 촉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진사전>의 사건은 부의 불균형으로부터 비롯된 빈부의 대립과 조선 봉건사회의 양반과 상민(또는 천민)이라는 신분적 계급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면서도 평소라면 만나지 못했을 성희룡과 거지를 접촉하게 하고, 서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하는 기회였는지도 모른다.³⁰⁾

6. 결론

공감한다는 것은, 상대를 대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몸가짐을 지극히 삼가는 것은 곧 타자를 또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며 공감하려는 윤리적 태도인 것이다. 비록 지위와 권세, 부와 힘 등이 우월했음에도 성희룡은 거지를 뱀새나고 못 배웠으며 가난하고 천한 자라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각 주체는 평등한 소통의 대상이 된다. 타자를 자기화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을 타자화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진다. 법의 준수보다 윤리적 태도가 거지를 회심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효했다.

<성진사전>의 작가 이옥은 세상을 주관하고 생명을 총괄하는 하늘 아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존재를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두 같은 벌레³¹⁾로 인식했다. 인간과 벌레를 포함한 물(物)은 인의예지와 같은 도덕적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생명 자체로서 균등한 존재였다.³²⁾ 기근으로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에 그 거지 부부는 살기 위해 애쓰는 똑같은 생명일 뿐이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삶, 각자의 방식이 있다.³³⁾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보는 사람의 준거에 따라 모두 진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옥에게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가라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³⁴⁾ 그렇기에 쓸모없다고 배척했던

30) 앤서니 기든스필립 W. 서튼 지음(2018), 앞의 책, 416~418쪽.

31) 민희주(2018), 앞의 논문, 269쪽.

32) 김경미(2021), 앞의 논문, 10쪽 ; 29쪽 참조.

33) 박수밀(2018), 앞의 논문, 325쪽.

34) 민희주(2018), 위의 논문, 268쪽.

존재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배울 것이 있다.³⁵⁾ 다양한 인물들의 면모를 통해 이옥 또한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다.³⁶⁾

이옥에게 세계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런히 타자를 관찰하고, 타자와 소통할 때 비로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존재들의 차이를 인정하며 대화를 통해 타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다른 시각과 논리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세계를 단일한 프레임으로 보는 제한적 시선을 넘어 상이한 주체들 간의 갈등 해소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³⁷⁾ 문을 열고 타자를 중심에 두는 성희룡의 근신의 태도가 거지와 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이옥은 〈신병사전〉에서 명(明)과 유(幽)는 서로 다르다고 상호 부정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상호성의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자신의 본성을 명확히 하면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였다.³⁸⁾ 사회적 갈등의 해결 역시 그 사회를 구성하는 자아와 타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지속적인 소통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성찰해 나갈 때 타자와 사회,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온갖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³⁹⁾ 그렇기에 이옥은 다른 거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문을 열어 개방하고, 공감하려 한 성희룡의 행위와 그에 감응한 거지 간에 벌어진 사건을 짧은 글로나마 지어 마음에 새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각종 현안들의 해결에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35) 박수밀(2018), 위의 논문, 326쪽.

36) 정환국(2013), 앞의 논문, 233~237쪽.

37) 민희주(2018), 위의 논문, 259쪽.

38) 정인혁(2004), 앞의 논문, 26쪽.

39) 이태화, 「조선 후기 왈자 집단의 구성과 성격」, 『한국학연구』 22,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05, 28쪽.

참고문헌

- 李鈺, <성진사전>,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이옥전집』 2, 소명출판, 2001, 228~229쪽.
李鈺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完譯 李鈺全集』 4, (주)휴머니스트, 2009, 245쪽.

『日省錄』,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IT_V0_A19_11A_25A_00190_2014_138_XML

- 김경미, 「존재론의 관점에서 본 이옥의 별레 대한 인식」, 『어문론총』 8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21. 9~34쪽.
김경희, 「<장복선전>에 나타난 이옥의 문제의식 고찰 : 심노송의 <사가야화기>, 정약용의 <방친유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3~32쪽.
민희주, 「李鈺의 세계 인식과 글쓰기 방식」, 『민족문화연구』 제81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259~286쪽.
바슐라르, 광광수 역,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1~397쪽.
박수밀, 「이옥의 문학에 나타난 생태 글쓰기와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54집, 우리어문학회, 2018, 325~356쪽.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1~454쪽.
사마천, 卷126 <滑稽列傳> 第66, 정범진 외 옮김, 『史記列傳』 下, 까치, 1995, 861~1268쪽.
앤서니 기든스·필립스 W. 서튼 지음, 김봉석 옮김,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동녘, 2018, 1~486쪽.
엠미누엘 레비나스 지음, 강연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1, 1~182쪽.
李在銑, 『韓國文學主題論』, 西江大學校出版部, 1991, 1~486쪽.
이태화, 「조선후기 왈자 집단의 구성과 성격」, 『한국학연구』 2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165~198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1~626쪽.
정인혁, 『朝鮮後期 傳系短形敍事體 研究 : 조선후기 지식인의 정체성 찾기』, 한

국학술정보, 2004, 1~238쪽.

_____, 「〈신병사전〉의 서사적 갈등 구조 연구」, 『어문연구』 40-4, 한국어문교
육연구회, 2012, 177~199쪽.

정환국, 「李鈺의 인간학 : 傳을 대상으로」, 『韓國漢文學研究』 제52집, 2013, 233
~260쪽.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Critical Consciousness and the Way
of Resolution of Social Conflict in 〈Seong Jinsa-Jeon〉

Jung, In-hyouk

〈Seong Jinsa-Jeon〉 was written by Lee, Ok, a writ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deals with a fraud case that Jinsa Seong, Hui-ryong in Sangju went through.

However, the social critical consciousness of 〈Seong Jinsa-Jeon〉 draws attention to the serious economic imbalance in late Joseon society and class conflicts between the yangban and the common people, the rich and the poor through the appearance of refugees caused by famine, not just in fraud cases.

In particular, the essence of 〈Seong Jinsa-Jeon〉 lies in its approach to resolving societal confli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 perspective on and proposed solutions to conflict within 〈Seong Jinsa-Je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two protagonists, Seong, Hui-ryong and a beggar. The narrator argues that Seong, Hui-ryong's self-refinement(謹身) was instrumental in resolving the conflict, exploring the broader connotation of such self-refinement.

Within 〈Seong Jinsa-Jeon〉 the 'door' represents both the starting point of the incident and is the boundary that separates the space between Seong, Hui-ryong and the beggar. The space in 〈Seong Jinsa-Jeon〉 is divided into a rich inner space inside the door where the rich reside along the boundary of the door, and an outer space outside the door of the refugees who become beggars and wander after losing their homes. Therefore, it is recognized that the 'door' should be closed and protected for the rich, and open for the beggars.

Nonetheless, the door also serves as a conduit that connects and associates the two worlds inside and outside. By opening the door and

recognizing the beggar as another subject, Seong, Hui-ryong facilitates conflict resolution through dialogue. Face-to-face communication fosters empathy centered on the other, paving the way for conflict resolution. In other words, 'face-to-face' is to recognize the other outside the door as another subject like me. 'Self-refinement' encompasses not only self-cultivation but also placing others at the core of one's concern.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such conflicts offers insights into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reality of laws and legal sentiments. In a space governed by legal standards, endless opposition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persists due to a binary perception that merely seeks a stronger law to satisfy one's legal sentiments.

Recognizing the other as a mutual subject through communication allows for attentiveness to one's conscience, unveiling hidden truth, and enabling forgiveness through empathy. This is the way to resolve conflict suggested by 〈Seong Jinsa-Jeon〉. Although it is a short work, what 〈Seong Jinsa-Jeon〉 has achieved is truly great.

Key Words Lee, Ok, <Seong Jinsa-Jeon>, fraud, social conflict, door, internal and external dialectic, Self-refinement[謹身], other

논문투고일: 2024.03.19.
심사완료일: 2024.05.06.
게재확정일: 2024.05.08.

